

제국주의의 출현과 발전

[제국주의(帝國主義, imperialism)]

01. 정의

- 1880년 전후 등장한 서구 열강의 ★침략적 민족주의

02. 등장 배경

- ★독점적 자본주의 출현
 - : 원료 공급지, 상품 판매 시장 확보
 - : 잉여 자본의 투자 시장 필요
- 만국박람회(= 엑스포) 개최
 - : 런던(1851), 필라델피아(1876), 파리(에펠 탑, 1889)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수탈>

03. 발전

- 민족주의와 결합
 - : 제국주의적 침략 정책이 민족의 자존심과 권위를 세워 준다고 생각하여 적극 지지
- ★사회 진화론 유행
 - :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 ~ 1903)

사회도 생물과 같이 하나의 유기체이며, 생물 유기체가 활동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발전 법칙처럼 사회도 적응과 도태를 통해 저급의 상태에서 고급, 우등의 사회로 발전한다.

- : 다윈의 자연 선택(『종의 기원』, 1859)을 사회에 적용
- : 제국주의의 이론적 바탕 제공
 - ↳ 우월한 나라가 열등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
- ★인종주의
 - : 백인종이 황인종과 흑인종보다 우월하다고 주장
 - : 비유럽 지역 = 야만 지역
 - ↳ 크리스트교와 유럽 문명을 전파하는 것을 백인의 신성한 의무이자 봉사로 미화



<피어스 비누 광고>

04. 영향

-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서양 열강의 치열한 경쟁
 - :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새로운 나라가 참여하여 경쟁 심화

영국은 넘쳐 나는 인구를 해결하기 위해 새 영토를 개척해야 한다. 또 공장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팔기 위해 새로운 식민지가 필요하다. - 영국의 케이프 식민지 총독, 세실 로즈(1853 ~ 1902)

- 배타적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국제적인 대립으로 확대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나는 방대하고 비옥한 아프리카 대륙이 신비의 베일을 벗고 유럽인의 경제생활에 유용한 상업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 나의 기록이 미지의 대륙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촉진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리빙스턴의 『남아프리카 전도 여행기』(1856)

01. 배경

- 탐험가 리빙스턴(1813 ~ 1873)과 스탠리(1841 ~ 1904)에 의해 아프리카의 내륙 사정이 유럽에 소개
- 서양 열강의 경쟁적인 아프리카 진출

02. 아프리카 분할

1) 영국

- ★중단 정책
: 수에즈 운하 매수(1875) → 이집트 보호국화(1882)
: 보어 전쟁(1899 ~ 1902) → 케이프 식민지를 남아프리카 연방으로 조직(1910)
- ★3C 정책
: 케이프타운(Cape Town) ~ 카이로(Cairo) ~ 캘커타(Calcutta)

2) 프랑스

- ★횡단 정책 추진
: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튀니지 획득
: 사하라 사막 확보, 콩고 분할(~ 벨기에)
: 마다가스카르 섬 차지

3) 벨기에

- 레오폴드 2세(재위 1865 ~ 1909)
: 영국과 포르투갈의 연합 세력 격퇴(1884 ~ 1885)
↳ 중앙아프리카의 콩고에 대한 영유권 선언

4)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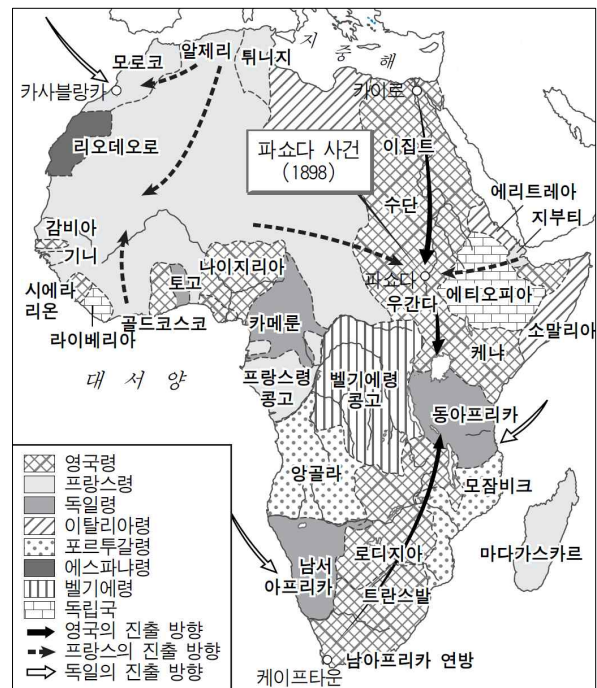
- 토고·카메룬, 동아프리카, 남서아프리카 등 차지
- ★모로코 사건(對 프랑스, 1905·1911)

5) 포르투갈

- 앙골라 ~ 모잠비크 연결(『장미 빛 지도』 구상, 1886)

6) 파쇼다 사건(수단, ★1898)

- 영국(중단) 對 프랑스(횡단) → 독일을 견제하려는 프랑스의 양보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

03. 독립국 유지

- ★라이베리아(자유의 나라,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 1847)
- 에티오피아

제국주의 열강의 아시아·태평양 분할

[아시아 분할]

01. 영국

- 동인도 회사 설립(1600)
: 인도 진출 → 인도 직접 지배(1877)
- 제1차 아편 전쟁(1840 ~ 1842)

02. 프랑스

-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반도 진출
: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 수립(★1887)

03. 네덜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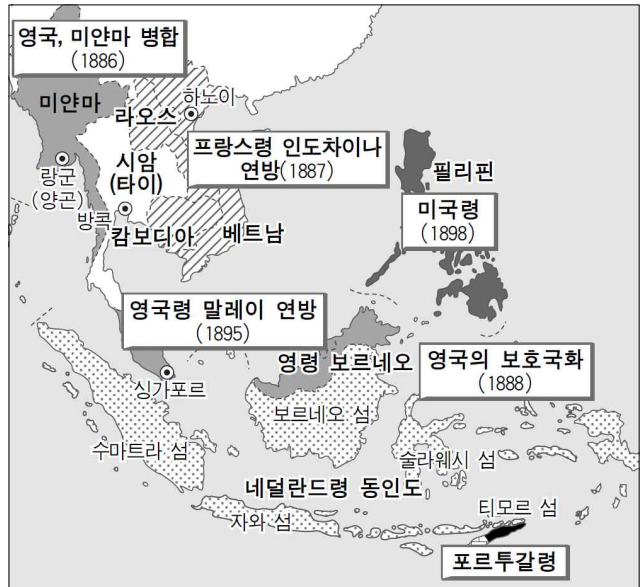
- 네덜란드 동인도회사(1602) 설립
: бата비아(자카르타)를 거점으로 향신료 무역 독점
- 네덜란드령 동인도 건설(1800)
: 자와 전쟁(1825 ~ 1830), 자와 섬 장악, 인도네시아 대부분을 식민지로 확보

04. 에스파냐

-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의 도전을 물리치고 필리핀을 식민지화(1837)
: 미국·에스파냐 전쟁(파리 조약, 1898)으로 식민지 상실

05. 러시아

- 이란 침략, 아프가니스탄 진출 시도
: 영국, 아프가니스탄을 보호국으로 만들어 러시아의 팽창 견제(1880)



<열강의 동남아시아 분할>

[태평양 분할]

01. 미국

- 필리핀을 비롯한 태평양의 많은 섬을 식민지화
- 에스파냐와의 전쟁(1898)에서 승리 → 쿠바를 보호국으로 삼고, 괌과 하와이 차지

02.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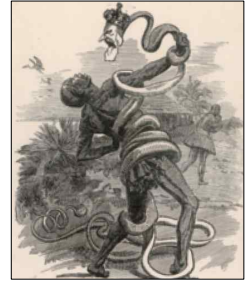
- 태평양 서부 캐롤라인 제도, 팔라우 등을 에스파냐로부터 매입

03. 영국

- 오스트레일리아를 식민지로 삼은 뒤 죄수 유배지로 이용(1788)
- 뉴질랜드 확보(1840)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아프리카 마을의 여원 소년 40명은 저마다 고무 바구니를 들고서 한 줄로 늘어섰다. …… 네 바구니가 할당량보다 모자랐다. 냉혹한 명령은 짧고 날카로웠다. 네 명의 건강한 집행관이 양을 채우지 못한 첫 번째 어린이를 붙잡아 손발을 묶고는 기다란 채찍으로 때렸다.
- 아담 호크실드, 『레오폴드왕의 유령』(1998)



01. 배경

- 베를린 회의(1884 ~ 1885)
 - : 서구 열강, 아프리카를 주인 없는 땅으로 선언
 - : 일정 지역을 점령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국가가 우선권을 가진다는 분할 원칙 합의
 - : 아프리카 분할 경쟁 시작

02. 북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만 제국의 쇠퇴로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식민 지배 • 알 무크타르의 강력한 저항 운동으로 이탈리아가 효과적으로 지배하지 못함
일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의 침략(1830) → 30여 년간 민족 저항 → 프랑스의 무력 진압 • 프랑스의 식민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인 정착지 건설, 원주민 차별

03.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함마드 아흐마드, 마흐디 운동(1881 ~ 18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영국의 지배에 맞서 마흐디(구원자, = 마디) 자처 ✓ 군대 구성, 토지 개혁 추진
에티오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넬리크 2세(재위 1889 ~ 1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티오피아 통일, 철도와 학교 설립, 신식 군대 창설 • ★아도와 전투(1896)에서 이탈리아의 침입·격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디스아바바 조약(1896)으로 독립 인정
줄루 왕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카 줄루가 주변 부족을 통합하여 왕국 건설 • 줄루 전쟁(= 이산들와나 전투, 18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려는 영국의 침략 격퇴 ✓ 영국의 지속적인 침략으로 식민지 전략
나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령 남서아프리카 • ★헤레로 족의 무장 봉기(1904) → 독일의 무력 진압
탄자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식민 지배와 수탈 • ★마지마지 운동(19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킨 체케틸레 주도로 주술사들의 저항 운동 ✓ 목화 나무를 뽑으며 봉기 ✓ 독일의 초토화 전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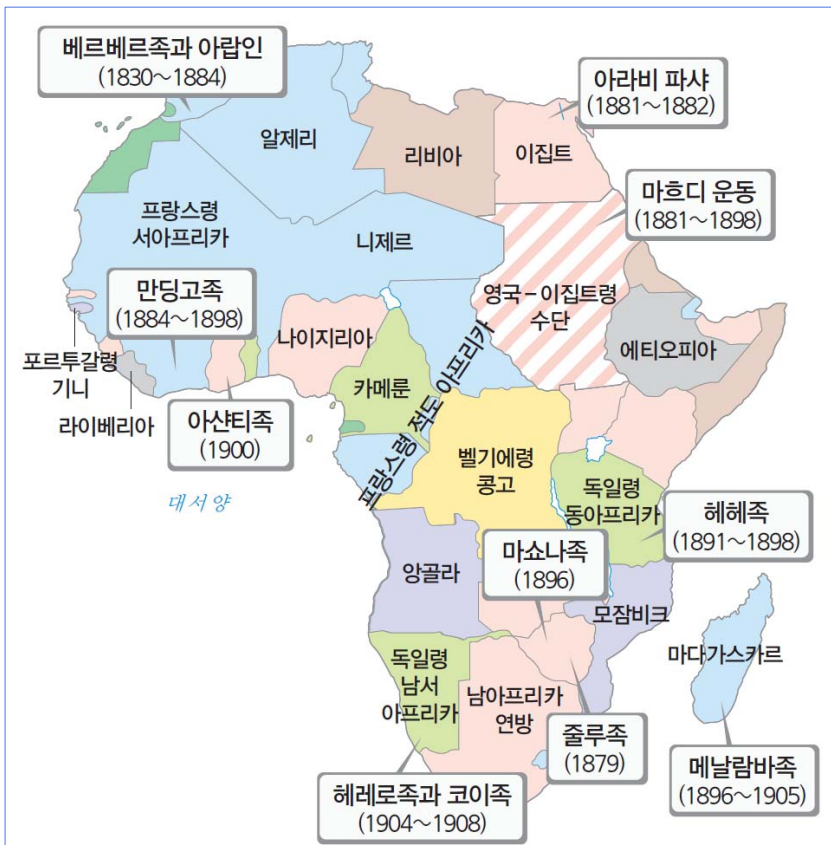
▶ 독일군의 헤레로 족의 무장 봉기 진압(1904)

헤레로 족은 이 땅에서 떠나야 한다. 만일 떠나지 않으면 대포로 쫓아 버릴 것이다. 무기를 가졌든 안 가졌든, 소 떼를 가졌든 안 가졌든 독일령 내에 있는 헤레로 족은 누구든지 총격을 받을 것이다. 여자들도 아이들도 용서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자기 부족에게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들도 공격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헤레로 족에 대한 나의 최후통첩이다.

- 로타르 폰 트로타(Lothar von Trotha, 1848 ~ 1920) 장군의 명령

독일은 남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독일인들을 이주시켰다. 헤레로 족은 소를 기르는 유목민이었는데 그들의 방목지와 소가 독일인에게 넘어갔다. 불만을 품은 헤레로 족이 1904년 농장주에 대한 습격을 시작하였다. 이에 독일의 빌헬름 2세(재위 1888 ~ 1918)는 트로타를 최고 사령관으로 하는 군대를 파견하여 헤레로 족을 사막으로 몰아넣어 학살하였다.

▶ 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영토 경계, 1914)



개념 Check

- ① 에티오피아에서는 () 2세가 철도와 학교를 설립하는 등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② 줄루 왕국은 1879년에 이산들와나 전투에서 ()의 군대를 격파하기도 하였다.
- ③ 19세기 후반 서양 열강이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약소국을 식민 지배한 정책을 ()라고 한다.
- ④ 국가의 대외적 평창을 민족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침략적 () 이념이 고조되어 제국주의가 본격화되었다.
- ⑤ 스페인이 발표한 ()은 적자생존의 원칙을 사회에 적용한 이론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뒷받침하였다.
- ⑥ ()은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고 남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았다.
- ⑦ 아프리카 지배권을 둘러싸고 1898년 영국과 프랑스가 수단의 ()에서 충돌하였다.
- ⑧ 프랑스와 독일은 ()를 둘러싸고 1905년, 1911년 두 차례에 걸쳐 대립하였다.
- ⑨ 미국은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를 보호국화하였다.

실전문제

01

(가), (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6월 모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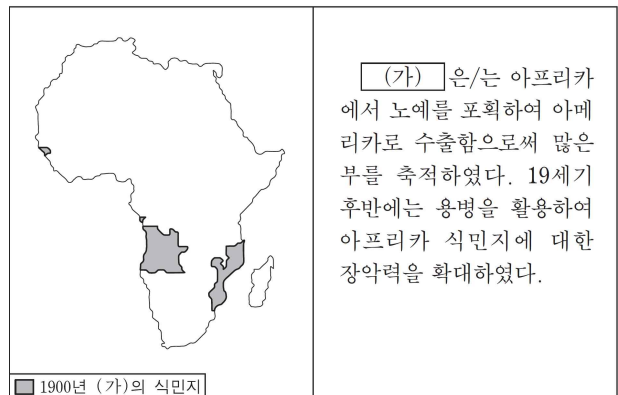


- ① (가) - 아도와 전투에서 에티오피아 패배하였다.
- ② (가) - 카이로와 케이프타운을 잇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③ (나) - 줄루 왕국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았다.
- ④ (나) - 헤레로 족의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 ⑤ (가), (나) - 팽창 정책을 추진하며 파쇼다 사건을 일으켰다.

02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수능]



- ①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쿠바를 상실하였다.
- ②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고 수에즈 운하를 차지하였다.
- ③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여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하였다.
- ④ 16세기 동남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향신료 무역을 주도하였다.
- ⑤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3B 정책을 추진하였다.

실전문제

03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수능]



그림은 유럽 열강 중 하나인 이 나라의 국왕 레오폴드(레오폴트) 2세가 아프리카인들에게 행한 가혹한 착취를 풍자한 것이다. 그는 고무, 상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학살을 자행하였다.

- ① 파쇼다에서 영국과 충돌하였다.
- ② 모로코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대립하였다.
- ③ 아도와 전투에서 에티오피아에 패배하였다.
- ④ 줄루족과 벌인 이산들와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 ⑤ 프랑스 등과 함께 콩고 강 일대를 분할 지배하였다.

04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1-9월 모의평가]

- (가) 홍해와 지중해를 잇는 운하가 프랑스인 페르디낭 드 레쎹스의 주도로 착공된 지 10년여 만에 개통되었다. 이로써 유럽과 인도를 오갈 때 남아프리카 아굴라스 곶을 돌아갈 필요가 없어져 항해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 (나) 프랑스 원정대는 가봉에서 동쪽으로 진격했고 영국 군대는 이집트에서 나일 강을 따라 남하하였다. 프랑스군이 먼저 파쇼다에 도착해 요새를 점령했지만 곧 영국군의 도전을 받아 몇 달간 긴장이 지속되었다.

- ① 프랑스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을 수립하였다.
- ② 한반도와 만주의 이권을 두고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 ③ 영국과 러시아의 간섭으로 이란 입헌 혁명이 실패하였다.
- ④ 프랑스와 독일의 대립으로 제1차 모로코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⑤ 영국과 프랑스가 중국을 상대로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

제1차 세계 대전(1914 ~ 1918)

01. 배경

1)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대립

- 삼제 동맹(독일 · 오스트리아 · 러시아, 1873)
- ★삼국 동맹(1882)
: 비스마르크(1815 ~ 1898)의 외교 정책(1871 ~ 1890)
↳ 유럽의 현상 유지와 프랑스의 고립화
↳ ★독일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삼국 협상(1907)
: 러 · 프 동맹(1894) → 영 · 프 협상(1904) → 영 · 러 협상(1907)



2) 빌헬름 2세(재위 1888 ~ 1918)의 대외 팽창 정책

- ★범게르만주의 표방 → 발칸 지역에서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 후원
- 3B(★베를린 ~ 비잔티움 ~ 바그다드) 정책
- 영국과 전함 경쟁

3) 제1 · 2차 발칸 전쟁

-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의 충돌
: 독일(오스트리아 · 헝가리 후원) 對 러시아(세르비아 후원)
-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 인이 다수인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병합(1908)
- ★제1차 발칸 전쟁(1912)
: 오스만 제국의 쇠퇴
↳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몬테네그로 등이 제1차 발칸 동맹 결성
↳ 오스만 제국 축출과 동맹국의 영토 확보 시도
- ★제2차 발칸 전쟁(1913)
: 세르비아의 알바니아 지역 병합 시도
↳ 오스트리아의 방해로 좌절 → 세르비아, 그리스 등이 제2차 발칸 동맹 결성
: 제2차 발칸 동맹국 對 불가리아
↳ 불가리아의 패배와 영토 상실

4) ★사라예보 사건(1914. 6월 28일)

- 세르비아의 한 청년 민족주의자가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
-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 포고
: 러시아 → 세르비아 지원
: 독일 → 러시아에 선전 포고
: 프랑스, 영국의 전쟁 참여
↳ 제1차 세계 대전 시작
↳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가 동맹국 측에 가담, 이탈리아와 일본 등이 협상국 측에 가담

제1차 세계 대전(1914 ~ 1918)

02. 전개(문학 작품, 『황무지』·『서부 전선 이상 없다』)

1) 독일군의 진격

- 벨기에 공격 → 프랑스로 진격 → 영국의 프랑스 지원
- ★마른(1914) 전투, 솜 전투(1916)
: 독일군의 패배 → 전쟁의 교착, 참호전(신무기의 공격을 피해 참호를 파고 전투 전개)의 양상

2) 전세 변화

- 영국의 해상 봉쇄 작전 → 독일 고립 시도
-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전개
: 미국의 여객선 루시타니아 호 침몰(1915. 5월 7일)
↳ 미국 의회의 대독 선전 포고 결정(1917. 4월 6일) → 미국의 참전
↳ 연합국에 유리하게 전개
-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발생(1917. 3월)
: ★독일과 단독 강화(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1918)로 전쟁 중단
- 독일, 모든 전력을 서부 전선에 집중
: 프랑스 총공격 → 실패

03. 전쟁 종결

1) 동맹국의 탈퇴와 항복

-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

2) 독일

- ★킬 군항의 수병들의 반란(= 11월 혁명, 1918)
: 빌헬름 2세(재위 1888 ~ 1918)의 퇴위와 네덜란드 망명 → 군주제 폐지와 공화국 선포
- 협상국 ~ 독일 임시 정부의 휴전 조약 체결(1918. 11월 11일)
: 전쟁 종결(1918. 11월 18일)
- 국민의회 소집(바이마르)
: 바이마르 헌법 채택(1919. 2월) → ★바이마르 공화국(Weimarer Republik) 출범

04. 전쟁의 특징과 문예 사조의 변화

1) 전쟁의 특징

- 전·후방의 구분 없이 국가 전체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총력전 전개
- 기관총, 탱크, 전투기, 잠수함, 독가스 등 신무기 등장

2) 문예 시조의 변화

- 다다이즘(Dadaism)과 초현실주의(Surrealism)의 등장
: 보수적인 문화 및 예술에 대한 기존의 가치 부정과 전쟁 반대 운동

제1차 세계 대전(1914 ~ 1918)의 결과

01. ★파리 강화 회의(1919. 1월 ~ 1920. 1월)

-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전승국 대표 참석 → 전후 처리와 평화 수립 논의
- 윌슨이 제창한 평화 원칙 14개조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전승국의 이익과 패전국에 대한 응징이 강하게 작용

02. ★베르사유 조약(1919. 6월)과 베르사유 체제

- 독일의 모든 식민지 상실
- : 인구와 영토가 1/10로 감소, ★알자스·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양도
- 군비 축소, 막대한 배상금을 연합국에 지불

제119조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요구를 동맹국과 연합국의 주요 국가에 넘겨준다.
제173조 독일에서 일반 의무병제는 폐지된다. 독일 육군은 지원병제로만 조직하고 보충할 수 있다.
제235조 독일은 동맹국과 연합국의 청구액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배상 위원회가 정하는 지급 방법에 따라
…… 200억 마르크 금화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

03.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 창설(1920. 1월)

- 윌슨 대통령의 제창, 파리 강화 회의의 결의
- : 제1차 세계 대전에 대한 반성과 평화를 위한 노력
- : ★최초의 국제 평화 기구, 본부(제네바)
- 미국 등 강대국의 불참, 독일과 소련 제외[★독일(1926), 소련(1934)의 가입], 군사적 제재 수단 미비

04. 부전 조약의 체결

- ★로카르노 협정(1925)
- : 독일의 알자스·로렌 지방 포기, 라인란트 영구 비무장화, ★독일의 국제 연맹 가입 결정(1926)
- ★켈로그·브리앙 조약(= 파리 조약, 1928)
- : 미국(켈로그), 프랑스(브리앙), 영국 등 15개국 합의

제1조 조약 체결국은 국제 분쟁을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을 비난하며,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2조 조약 체결국은 상호 간의 분쟁을 오직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

05. 군비 축소 회의

- ★워싱턴 회의(1921 ~ 22)
- 런던 회의(1930)
- 제네바 회의(1932)

06. 독일의 배상금 문제 논의

- 도스안(미국의 자본 8억 달러 투입, 1924)
- 영안(배상 금액을 4분의 1 정도인 358억 마르크로 탕감하고 지불 기한을 59년으로 연장, 1929)
- 로잔 회의(배상금을 30억 마르크로 삭감, 1932)

러시아 혁명(1917)

01. 혁명 전의 러시아

- 산업화로 공업 도시(상트페테르부르크) 발달과 노동자 계급 성장
 - ↳ 볼셰비키 당 설립(1903)
- 차르(tsar, 이반 4세, 1547~) 전제 정치 지속
- ★피의 일요일 사건(1905. 1월 22일)
 - : 러·일 전쟁(1904 ~ 1905)이 불리하게 전개
 - : 8시간 노동, 의회 소집, 시민적 자유 등을 황제에게 진정하기 위한 평화로운 군중 시위 발발
 - ↳ 차르 수비대의 무력 진압과 사상자 발생
- ★니콜라이 2세(재위 1894 ~ 1917)의 10월 선언
 - : 시민적 자유와 국회 소집 약속 → 두마 의회 개설(1906)

02. 혁명의 전개

1) ★3월 혁명(러시아력 2월 혁명)

- 제1차 세계대전 참전과 패전 거둠 → 전쟁 장기화 → 식량 부족과 물가 폭등
- 페트로그라드에서 ★식량 배급, 전쟁 중지, 전제 정치의 타도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 파업 발생
- ★노동자·병사 대표 소비에트(평의회)를 조직하여 혁명 추진
 - : 니콜라이 2세 퇴위 → 로마노프 왕조 붕괴
 - : ★케렌스키(1881 ~ 1970) 주도의 임시 공화 정부 수립

우리는 부서의 창문을 통해 내다보이는 골목에서 울려 퍼지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물가를 해결하라!”, “굶주림을 없애라!”, “노동자에게 빵을!” 나와 몇 명 동료들은 즉시 창가로 달려갔다. …… 투쟁적인 분위기에 휩싸인 여성 노동자들의 무리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우리를 본 사람들이 “나와요!”, “작업을 멈춰요!” 라고 외치면서 손을 흔들기 시작하였다. 눈물치가 창문으로 날아들었다. 우리는 시위에 참가하기로 결심하였다. - 페트로그라드 노벨 기계 제작소 노동자의 회고

2) ★11월 혁명(러시아력 10월 혁명)

- 케렌스키 임시 정부의 개혁 실패
 - : ★전쟁 지속, 토지 제도 개혁 연기 등 미온적 개혁
- 레닌(1870 ~ 1924)의 4월 테제 발표
 - : 전쟁 반대, 사회주의 지향 → 노동자·병사 소비에트와 케렌스키 임시 정부의 대립
- 레닌, 트로츠키(1879 ~ 1940) 중심의 볼셰비키 무력 혁명
 - : ★임시 정부를 해체하고 소비에트 정부 수립

임시 정부는 타도되었다. 임시 정부의 각료는 거의 체포되었다. 소비에트 정권은 지주·귀족 및 교회의 토지를 무상으로 농민 위원회에 넘겨 그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또 군대의 완전한 민주화를 이루어 병사의 권리를 지켜 주고, 생산을 노동자가 통제하는 제도로 만들고, 적당한 시기에 헌법 제정 의회를 소집할 것을 보장하고, 도시에 대한 곡물 공급과 농촌에 대한 생필품 공급에도 신경을 쓰며, 러시아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진정한 자결권을 보장할 것이다. -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의 선언문(1917. 11. 8.)

혁명 이후의 러시아

01. 레닌의 일당 독재

-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1918) 체결
: 폴란드, 발트해 연안, 벨로루시의 할양
: 우크라이나의 독립 승인
: 전쟁 배상금 지급
- 토지, 산업의 국유화 등 사회주의 개혁 추진
- 내전 발생
: 백색군 對 적색군
- 코민테른(Comintern) 창설(1919 ~ 1943)
: 제3차 인터내셔널

㉠ 레닌(1870 ~ 1924)



- 활동
: 1900년 독일 망명 『이스크라(불꽃)』 창간
: 1905년 러시아 귀국
: 1907년 스위스 망명
: 1917년 러시아 귀국 볼셰비키 혁명
- 주요 저술
: 『제국주의론』(1917)
- 주장
: 농민에게 토지를!,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02. 레닌의 신경제 정책(Novaya Ekonomicheskaya Politika, ★1921 ~ 1928)

- 급속한 공산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해결과 국민 불만 해소
- 시장 판매와 같은 자본주의 요소의 일부 도입
: 개인 농장 부활, 소기업업과 관리자들의 성장 → 네프 맨(NEP men)

1. …… 농촌 경제를 강화시켜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 국가가 식량, 원료 및 사료들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써 식량 할당 징발제 대신에 현물세를 실시한다.
2. 이 현물세는 식량 할당 징발제를 통하여 지금까지 부과된 액수보다 적어야 한다.
3. 현물세를 납부하고 나서 농민들의 손에 남는 모든 식량과 원료 및 사료의 처분은 그들의 재량에 맡기며, ……
- 신경제 정책에 관한 제10회 당 대회 결의(1921. 3월)

03.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SSR, 1922. 12월 ~ 1991. 8월) 수립

- 소비에트 러시아 중심
: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주변의 소비에트 정부 흡수

04. 스탈린(1878 ~ 1953)의 독재 체제

- 소련 공산당 서기장(1922 ~ 1953), 소련 국가평의회 주석(1941 ~ 1953)
: 공산당 1당 독재 강화
- 급속한 산업화 목표
: 신경제 정책 포기 → 토지와 농민을 묶어 집단 농장으로 운영 → 1930년대 농업 위기 초래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실시
↳ 제1차(1928 ~ 1932), 공장과 댐을 건설하고 새로운 광산 개발

개념 Check

- ① 빌헬름 2세의 대외 팽창 정책에 불안을 느낀 (), 프랑스, 러시아는 삼국 협상을 체결하였다.
- ②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한 ()을 계기로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다.
- ③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은 전승국과 ()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해외 식민지를 상실하였다.
- ④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직후, 국제기구를 조직하자는 미국의 제창으로 ()이 창설되었다.
- ⑤ 레닌은 급격한 공산화에 따른 경제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을 시행하였다.

실전문제

01

다음 가상 편지에서 밑줄 친 '조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7-수능]

친애하는 000 장관님

사라예보의 총성으로 시작된 전쟁이 끝난 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두 나라는 평화와 인류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로카르노 조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두 사람의 주도 아래 이번 8월에 체결된 조약은 그러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외무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 드림

- ① 국제 연맹을 창설한다.
- ② 해군의 군비를 감축한다.
- ③ 독일의 전쟁 배상금을 삭감한다.
- ④ 전쟁을 국가 정책이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 ⑤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02

(가), (나)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6월 모의평가]

○○○학회 학술 대회: 러시아 혁명과 전쟁

일시: 2017년 △△월 △△일 장소: □□대학교 □□강당

(가) 에서 러시아가 블리해지자 전쟁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차르가 이를 무시한 것이 2월 혁명의 주요한 원인이었죠.

맞습니다. 러시아에서 혁명은 전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돌이켜보면 '피의 일요일 사건'도 (나) 의 전개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 ① (가) - 독일이 소련과의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면서 확대되었다.
- ② (가) - 두마 설치 등 니콜라이 2세의 개혁이 선언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나) - 러시아에서 농노 해방령이 선포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④ (나) -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 ⑤ (가), (나) 사이에 두 차례의 발칸 전쟁이 일어났다.

